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9.01~24.09.30)

- **미국 교통부(DOT), 지역도로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350여개 커뮤니티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발표 [9/5]**
 - 미국 교통부(DOT)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 인프라법의 일환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 및 도로 프로그램(SS4A)'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해당 보조금은 354개 지역사회와 지방 및 부족 커뮤니티에 직접 지원되며,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미국의 농촌 및 도시의 도로에서의 사망 및 중상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예정임
 - 지난 9분기 연속으로 도로 사망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의 도로에서 매년 4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골 지역이나 도보 또는 자전거로 사망하는 사망자수가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SS4A프로그램을 통해 2년 이상 연속으로 교통 사망자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도로 위험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언급함
 - SS4A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의 43%인 682개의 지역사회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임. 또한, 전체의 50%인 793명은 미국 교통부(USDOT)의 신규 연방자금 수혜자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6,9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발표 [9/5]**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0개 주에 걸쳐 약 2천여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 복구 프로그램(GRRP)'에 따라 6,91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 이번 보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성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오염을 감소시키고 주택 운영비용을 줄이고자 함. 또한,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 리스크에 대한 주택의 회복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에이드리언 토드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대행은 현재까지 2022년 제정된 GRRP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전국의 주택을 현대화하기 위한 자금으로 8.4억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이번 보조금은 미국인들이 극한 기상현상에 잘 견디고 에너지 효율적인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줄리아 고든 주택담당 차관보는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은 버몬트주와 와이오밍주에 처음 지급되는 것이며, 이번 프로그램에 따른 총 자금지원액은 전국 39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등의 지역사회에 8억 4,2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이는 탄소 감소, 재생에너지 생산, 저탄소 건축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 교통부(DOT), 홍수로 파손된 코네티컷주의 도로 및 교량 수리를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지원 발표 [9/6]**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도로청(FHWA)은 지난 8월 역대급 강우와 홍수로 인해 파손된 도로와 교량을 수리하기 위해 코네티컷 교통부(CTDOT)에 3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지난 8월 18일과 19일 코네티컷 서부의 베델, 먼로, 뉴타운, 옥스퍼드, 덴버리 등 지역에 역대급 강우와 홍수로 인해 경사면 침식, 도로 붕괴, 교량 침식, 옹벽 파손 등 주요 도로 19개 지점에 피해가 발생함
- 코네티컷 교통부(CTDOT)는 이번 긴급구호자금을 통해 신속한 초기 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후 변화와 기상현상으로 인한 손상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프라의 설계, 복구, 수리에 회복력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긴급구호자금을 통해 주민, 근로자, 기업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수도로의 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 교통부(DOT), 미국 전역의 공항 인프라 개선을 위해 1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 발표 [9/6]**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미국 전역의 공항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 개선 프로그램(AIP)에 따라 48개 주, 괌,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의 지역공항에 1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성과 복잡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공 인프라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조금은 수십 개의 공항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미국이 항공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강조함
- 이번 보조금은 공항 개선 프로그램(AIP)의 5차 라운드로 공기, 물, 토양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유해한 영구화학물질인 수성필름형성품(AFFF) 및 폴리플루오로알킬(PFAS)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기술 테스트에 최초로 해당 자금이 지원될 예정임
- 활주로 및 활주로 포장 재건축 보조금을 받는 공항은 다음과 같음
- 애리조나주 투산 국제공항(5,500만 달러), 콜로라도주 그랜드 정션 지역공항(3,470만 달러), 조지아주 콜롬버스 공항(2,440만 달러),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국제공항(1,870만 달러) 등임
- PFAS 정화 테스트 보조금을 받는 공항은 다음과 같음
-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공항(350만 달러), 매사추세츠주 낸터킷 메모리얼 공항(120만 달러), 미시간주 펄스턴 지역공항(70만 달러) 등임
- 소음 연구 및 완화 보조금을 받는 공항은 다음과 같음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1,580만 달러),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국제공항(220만 달러), 코네티컷주 트워드 뉴헤이븐 공항(54만 달러), 일리노이주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56만 달러) 등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뉴저지주 캠든에 저렴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해 564만 달러 보조금 지급 발표 [9/9]**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기후 탄력성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뉴저지주 노스캠든 지역에 있는 402개 규모의 저렴한 주택 개발지인 노스 게이트 II에 564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함

- 이번 보조금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그린 복구 프로그램(GRRP)'을 통해 노스게이트 II와 소유주인 페어쉐어 주택개발사에 직접 지원하며,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생산, 기후 회복력, 저탄소 재료에 동시에 투자할 예정임
- 에이드리언 토드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덕분에 전국의 친환경적인 저렴한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이번 보조금을 통해 뉴저지주 캠프 지역에 있는 수백 개의 저렴한 주택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5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1978~1980년에 처음 건설된 노스게이트 II는 이번 보조금을 통해 가스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고, 단열재 및 조명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클린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건물 전면을 개조하는 등 프로젝트의 에너지 관련 구성요소들이 개선될 예정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주택비용 절감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렴한 조립주택 건설 표준규정 개정 발표 [9/9]**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개방형 평면도 및 접근성 향상, 다락방 사양 개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 개선을 위해 「조립주택건설 및 안전기준법」 중 90개의 새로운 표준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함
- 해당 법률은 1974년 8월 22일 연방법으로 발효되었으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미국에서 건설되는 모든 조립주택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국가적 선제적 연방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립한 법임. 현재 이 법률은 일반적으로 "HUD 코드"로 알려져 있으며, HUD의 조립주택 프로그램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연방기준 지침으로 남아있음
- 이번 개정은 제조업체가 이미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재료에 대한 대체건설 승인절차를 없애고 번거로운 절차를 줄임으로써 주택 생산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미국의 주택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조립식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에이드리언 토드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대행은 조립주택은 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옵션이며,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 표준규정 개정에는 포함된 주요 추가사항 및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최대 4개 유닛의 조립식 주택 건설가능, ② 개방형 평면도, 트러스 설계 및 다락방 사양 개선, ③ 능선지붕 설계, ④ 현대식 디자인 및 건축자재 개선, ⑤ 접근성 개선, ⑥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설치, ⑦ 시간 및 비용 절감 프로세스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 시카고 주택청(CHA), 더 많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발표 [9/12]**

- 미국 시카고 주택청(CHA)은 더 많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재건축주택 이니셔티브' 추진에 18개월 동안 최대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함
- 2023년 후반 발표된 '재건축주택 이니셔티브'는 소규모 및 중규모 아파트 포트폴리오의 공실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시카고 도시 주변의 약 36개의 소규모 및 중규모 공실 아파트 건물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175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가능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추가로 40개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 또는 저렴한 주택소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미국 시카고 주택청 위원회는 우선 4개의 빌딩을 60개의 임대가능한 상태의 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총 1,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승인하였으며, 이 건물은 2025년 중반에 준공될 예정임

- 시카고 주택청(CHA)은 8월말 기준으로 5개동에 4인 가족 중심의 16개 아파트가 완성되었고, 다세대주택 2채가 완성되어 9월 말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힘. 현재는 11개의 다세대 건물에 29개 유닛을 건설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모두 완공시켜 입주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추가적으로 16개의 단독주택 재건축이 시작될 예정임

□ **미국 교통부(DOT), 푸에르토리코 열대성 폭풍 '에르네스토'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미국 산림청에 2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지원 발표 [9/13]**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도로청(FHWA)은 푸에르토리코 열대성 폭풍 '에르네스토'로 인해 El Yunque 국유림 주요도로의 수리비용으로 미국 산림청에 2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지난 8월 15일 열대성 폭풍 '에르네스토'가 320만명의 주민이 사는 미국 영토를 강타하여 섬 일부에 10인치가 넘는 폭우를 쏟아냈으며, 시속 60마일의 속도로 약 650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힘
- 미국 산림청 직원과 연방도로청(FHWA) 직원은 현재 6개의 도로와 5개 산책로에 대한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차량, 공공서비스 지원, 도로의 수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긴급구호자금은 주요 교통망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재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미국의 인프라를 미래 기후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DOT), 신규 시멘트 개발을 위해 500만 달러 규모의 연구자금 지원 발표 [9/24]**

- 미국 교통부(DOT)는 럿거스대학의 고급 인프라·교통 센터(CAIT)에 500만 달러의 연구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번 미국 교통부와 럿거스대학 간의 협력은 국가 교통 인프라의 탈탄소화, 지속가능성 촉진, 회복력 강화 등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리더십 하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차세대 건축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럿거스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인프라가 더욱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2050년까지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목표를 지원하고, 국가 교통인프라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교통시스템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소재와 기술이 개발될 예정임
- 럿거스대학의 CAIT에는 뉴저지기술대학, 오레곤주립대학, 플로리다대학 등 학계와 철강 및 시멘트 산업의 파트너 기관이 함께 포함될 예정임

□ **미국 교통부(DOT), 두 개의 허리케인으로 인해 발생한 대재앙적 홍수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버몬트에 6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기금 지원 발표 [9/24]**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도로청(FHWA)은 이번 여름 허리케인 베릴과 데비의 재앙적인 홍수와 장기간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지역사회 침수, 도로, 교량 피해에 대한 수리를 돕기 위해 버몬트 교통부(VTrans)에 긴급구호자금 6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지난 7월 10일 허리케인 베릴로 인해 재앙적인 홍수와 폭우가 버몬트주를 강타했으며, 단 48시간 동안 주 전역에서 3인치에서 8인치에 달하는 강우량이 관측되었음. 허리케인 데비의 경우, 홍수, 침식, 토지 및 산사태가 지난 8월 11일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두 개의 허리케인으로 발생한 예상 피해 추정치는 3,200만 달러에 달함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버몬트주에 1년만에 네 번째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번 긴급구호자금이 교통망 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해당 자금은 홍수 대응의 일환으로 도로에서 진흙 및 낙석 제거, 침식된 도로변과 가드레일 수리, 막힌 암거 뚫기, 구조물의 자재 제거, 유출수 처리 등 상황에 맞는 수리에 비용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